



제4회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의장단 워크숍 개최결과

김 선 / TTA 표준화본부 표준운영부 운영총괄팀 팀장

1. 머리말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표준화가 국제규범(Global Standard)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세계 각국은 표준화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신·방송의 결합과 유·무선의 융합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표준화는 더욱 복잡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국제표준에 의존하던 국내의 표준화 활동을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세계화를 향해 변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국내 표준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표준화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리드하고 있는 의장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TTA에서는 2000년부터 TTA 표준화위원회 의장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효율적인 표준화 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 수립과, 위원회간 표준화관련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부터는 정보통신표준화 포럼의 핵심멤버들이 표준화위원회 의장단 워크숍 행사에 참여하여 상호활동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포럼과 표준화위원회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의장단 워크숍은 가을의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의장단과 포럼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첫째날 NGN, 디지털홈, 휴대인터넷의 주요 표준화 현황소개와 표준화 로드맵, 표준 유지보수 결과, 표준 활용실태 결과 등의 과제계획 수립관련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전자지불포럼, 이더넷 포럼, IPv6 포럼에서 각각의 포럼활동에 대한 소개와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소개 및 토의가 있었다.

본 원고를 통하여 이번 의장단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고려해야할 표준화 활동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행사 개요

나. 개최장소 : 단양 대명콘도

가. 개최일시 : 2003. 10. 16. 13:30 ~ 2003. 10. 17. 12:30

다. 참석자 : 총 127명(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위원 : 87명, 포럼관계자 : 14명, 기타 : 26명)

라. 행사 프로그램

일정	내용	발표자	
10/16(목)	13:30~13:40	개회사	임주환 사무총장/TTA
	SESSION 1 : 주요 분야별 표준 동향 및 추진전략		
	13:40~14:10	디지털 홈 표준화 현황 및 추진방안 소개	박광로/ETRI
	14:10~14:40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현황소개	강충구/고려대
	14:40~15:10	NGN 표준화 추진동향 및 국내 표준화 추진전략 - ITU 표준화 활동을 중심으로 -	이재섭/KT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2 : 표준화 과제계획 수립 협의		
	15:30~16:00	정보통신단체표준 유지보수 검토결과	홍진표/OSIA
	16:00~16:30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조사결과 및 표준 수요조사 설문조사 결과	이정윤/엠브레인
	16:30~17:00	IT 정보통신표준화로드맵 소개 및 2003년도 표준화 과제계획 협의	장명국/TTA
10/17(금)	SESSION 3 : 포럼 활동 소개		
	09:00~09:20	IT 전략포럼 활동현황	김성권/TTA
	09:20~09:40	IPv6 Korea 포럼 활동소개	김형준/ETRI
	09:40~10:00	한국전자지불포럼 활동소개	김상석/NCA
	10:00~10:20	한국이더넷포럼 활동소개	윤종호/항공대
	10:20~10:40	관련 표준화 분야간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토의	진병문/TTA
	10:40~11:00	Coffee Break	
	SESSION 4 :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 협의		
	11:00~12:00	TTA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안) 소개 및 질의·응답	강신각/ETRI





3. 주요 토의내용

이번 행사는 TTA 임주환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틀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총 11건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다음은 각 세션별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가. Session I : 주요분야별 표준 동향 및 추진 전략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디지털홈”, “2.3GHz휴대인터넷”, “NGN” 3개 분야에 대한 최근 표준화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해당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다.

▶ 디지털홈 표준화 현황 및 추진방안(박광로, ETRI)

디지털홈 표준화는 2004년도부터 가시화될 시범사업을 앞두고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발표는 TTA 디지털홈연구반 의장 및 디지털홈포럼의 핵심멤버로서 국내 디지털홈 표준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ETRI의 박광로 팀장이 하였으며, 디지털 홈 개념과 디지털홈 구축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기술, 표준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표준화 추진현황은 홈네트워크 기술분야를 유무선으로 구분하여 각 기술현황과 표준화 추진현황을 소개하였으며, 다양한 미들웨어 표준현황도 소개하였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들웨어간 상호호환성 확보방안 및 전력선통신 호환성 확보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내 디지털홈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 2.3GHz 휴대인터넷 표준화 현황(강충구, 고려대)

“2.3GHz 휴대인터넷”은 현재 TTA내에 프로젝트그룹이 구성되어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모여 표준화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로서, 휴대인터넷프로젝트그룹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강충구 교수가 2.3GHz 휴대인터넷 기술의 소개 및 TTA 표준화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특히, 다양한 휴대인터넷 기술을 표준화된 기술과 비표준 기술로 나누어 핵심사항들을 요약 소개하고, 각 기술별 비교를 통해 휴대인터넷표준기술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TTA의 휴대인터넷 프로젝트 그룹에서의 표준화 추진 기본방향 및 분기별 추진계획 등 참석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 NGN표준화 추진동향 및 국내 표준화 추진전략 (이재섭, KT)

NGN 분야는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시장전개와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로, 이번 발표는 현재 ITU-T SG13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NGN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이재섭 박사가 최근 개최된 ITU NGN Workshop 및 JRG(Joint Rapporteur Group) 회의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참여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표준화 활동에 반영하고 국제표준화와 연계한 국내표준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SESSION II : 표준화 과제계획 수립 협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표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표준화 과제계획 수립과 관련이 깊은 연구과제 진행현황을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 2004년도 국내표준

화 과제계획 수립에 참조하고 개선방향을 고찰할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 정보통신단체표준 유지보수 검토결과(김영한, 송실대)

TTA에서 표준 제정업무를 시작한지도 15년이나 되었으며, 이에 따라 표준제정 업무 이외에 기재정된 표준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TTA에서는 OSIA를 통해 표준 유지보수 검토과제를 위탁연구과제로 수행하였으며, 본 발표는 유지보수 검토업무를 직접수행한 OSIA의 김영한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1997년 이전 제정된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재검토하여 표준별 계속유지, 개정, 폐지 등으로 분류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고, 분류 근거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2003년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및 표준화 수요 조사 중간보고(이정윤, 엠브레인)

정보통신표준 활용실태 및 수요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분석 업무로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조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엠브레인의 이정윤 이사는 분야별 정보통신 표준활용도 및 향후 표준화 수요를 전년도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발표하였다. TTA 표준총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ETRI 박기식 센터장은 향후 표준 활용실태 조사업무 수행시 설문지 작성단계부터 응답자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해줄 것과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제안하였다.

▶ 정보통신 중점기술 표준화 로드맵(장명국, TTA)

본 발표는 정보통신표준화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과제로 본 과제를 총괄하고 있는 TTA 장명국 표

준기획본부장이 발표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 로드맵의 필요성과 연구 수행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7개 분야 30개 중점과제의 선정방법 및 각 중점 분야별 표준화 추진전략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소개하여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다. SESSION III : 포럼활동 소개

본 세션은 표준화위원회 활동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IT 포럼의 활동소개 및 표준화위원회와 포럼간 상호협력을 주제로 한 토의로 진행되었다.

▶ IT 표준화 전략포럼 활동현황(김성권, TTA)

이번 발표에서는 IT 표준화 전략포럼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TA의 김성권 부장이 IT 표준화 전략포럼의 개요와 주요 역할, 그리고 포럼에 대한 지원계획을 소개하였다. 또 포럼의 행사개최 실적 및 표준(안)/기고서 작성실적 등을 전년도와 비교분석하여 소개하였으며, 포럼업무의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TTA의 관련 홈페이지 안내를 하였다.

▶ IPv6 Korea 포럼활동 소개(김형준, ETRI)

홈 네트워크와 무선통신 시대에 대비하고, 보안문제와 사용자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IPv6가 부각되고 있으며, TTA내에 표준화위원회와 연계하여 IPv6 포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본 발표에서 포럼과 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ETRI의 김형준 팀장은 IPv6 포럼 개요와 주요 역할, 그리고 국내외 표준화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 한국전자지불 포럼활동 소개(김상석, NCA)



한국전자지불포럼은 TTA IC카드기술위원회 및 e-biz 연구반 활동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총 13건의 표준초안을 개발하여 TTA에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전자지불포럼의 김상석 연구원은 포럼의 조직과 조직별 활동영역, 그리고 2003년도 표준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 한국 이더넷 포럼과 IEEE802(윤종호, 항공대)

한국이더넷 포럼의 활동현황은 현재 포럼 부의장으로 활동중인 항공대의 윤종호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주로 IEEE802의 유선분야 표준화 그룹 활동과 연계해서 포럼활동을 소개하였다. 현재 이더넷 분야는 통신망 및 전송분야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TTA내에 대응 연구반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통신망기술위원회 민경선 의장은 국내표준화가 활성화되면, 대응위원회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관련 표준화 분야간 상호연계 및 협력방안 토의(진병문, TTA)

본 토의는 TTA의 진병문 표준화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진병문 본부장은 포럼과 표준화위원회간 상호협력을 위해서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TTA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신망기술위원회 민경선 의장은 포럼에서 제안된 표준화과제의 추진시, 표준(안) 작성 경위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포럼멤버가 TTA 표준화 활동에 함께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라. SESSION IV :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 협의

이번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번 세션은 모든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으며,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열띤 토의가 이어진 자리였다. 본 세션은 TTA 표준화 조직개편 Ad-hoc Group 의장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강신각 박사가 진행하였다. 강신각 박사는 정보통신 표준화위원회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현표준화위원회 조직개요, 활동현황, 개선 요구사항 및 표준화포럼 활동 등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조직개편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작성한 개편조직(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개편조직(안) 소개에서는 전체개요와 조직도, 그리고 위원회별 역할과 임무를 제안하였고, 현 표준화위원회의 조직 및 표준화포럼과의 연관관계를 도표로 비교 설명하였다.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현재 운영위원회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중 시험인증, 국제협력, 이용자의견반영 위원회의 폐지
- 4개 기술분야(공통기반, 전송통신, 전파방송, IT 응용)로 기술위원회의 통폐합
- 기술위원회 산하 프로젝트그룹의 운영
- 프로젝트그룹 산하 위원회는 비공식 조직으로 운영 등이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젝트그룹 신설시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타 기술위와의 업무중복을 사전 조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일정기간 진행이 안되는 표준화과제에 대한 자동 폐지절차 도입, 그리고 프로젝트그룹 신설시 Milestone를 수립하여 활동토록 하고, 목표달성시 폐지를 원칙으로 하여, 표준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그룹은 상설조직이 아닌 표준화 환경변화 및 관심사항의 변화에 따라 신속히 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본

조직개편(안)은 초안 단계이므로 의견수렴 및 상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임을 덧붙였다.

본 조직개편(안)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 기술위원회를 두지 말고 총회 산하에 직속으로 PG를 운영
- 현행과 같이 기술위에서 PG신설 승인권한을 가지고, PG산하 조직신설 공식화
- 시험인증특별위원회가 폐지되어도 각 TC별로 산하 PG에서 제정하는 표준에 대한 시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ToR에도 명시되어 추진
- 이용자 의견반영위원회 폐지를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제안된 의견들은 추후 조직개편 Ad-hoc Group 회의를 통해 검토되어질 것이다. 이후에도 계속 질의가 이어졌으나 추가의견은 공식 의견수렴을 통해 제출해줄 것을 제안하고 행사를 종료하였다.

4. 맺음말

표준화 추진 및 표준화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장단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며, 표면상 드러난 성과 외에 표준화 추진을 위한 그들의 숨은 노력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러한 노력은 타의에 의한 것도 아니며, 대가를 기대하는 노력도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표준화에 대한 애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내 표준화 인적자원은 그리 풍부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두텁지 않은 전문가 층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내표준화가 국제표준화를 리드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표준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업체, 그리

고 표준 이용자들이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의장단 워크숍은 이렇듯 표준화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서로의 의견을 상호 교환해가며 향후 표준화 활동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포럼에서의 참석자가 많지 않았던 점, 너무 타이트한 일정으로 충분한 발표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점과, 특히 둘째날 조직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그리고 기술위원회간, 표준화위원회와 포럼간 상호 의견교류가 부족했던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행사가 매년 치루어지는 상투적인 연례 행사로 전락하지 않고 보다 알찬 성과를 맺고, 참석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본 행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준비하는 TTA 관련 부서,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의장단들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한편, 본 행사를 유익한 자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개편된 표준화위원회의 의장단을 주축으로 하여 진일보한 의장단 워크숍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 

